

광주시립극단 '세익스피어 in 광주'로 20년만에 무대 선 정상섭·한중곤씨

“지역 연극계 발전에 작은 보탬 되고파”

최근 열렸던 광주시립극단의 재창단 공연 작품 '세익스피어 in 광주'에서는 지역 연극계에서 만날 수 없었던 두명의 배우가 눈에 띄었다. 극을 이끌어가는 촌장 역을 맡은 배우 한중곤(53)씨와 5분 정도의 짧은 출연이었지만 강한 인상을 남긴 선돌이역의 화가 정상섭(56)씨다.

지난 1987년 광주시립극단이 해체 될 당시 한술밥을 먹었던 두 사람은 20년만에 다시 광주의 연극 무대에 섰다. 정씨는 본업인 '그림 그리는 일'에 충실해왔고, 한씨는 러시아에서 연극을 공부한 후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었다.

30일 광주시 동구 학동 정씨의 화실에서 만난 두 사람은 30여년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실했다.

조선대 미대 출신인 정씨는 1975년 극단 Y가 제작하는 작품의 팸플릿 디자인을 도와 주다 연극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아세아 극



광주시립극단 재창단 공연을 통해 다시 무대에 선 정상섭(사진 오른쪽)씨와 한중곤씨가 정씨의 화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조선대 미술대 출신 정상섭씨

'마의 태자' '예후' 등 작품활동

5분정도 짧은 출연 시선 압도

장에서 대형작품 '마의 태자'를 공연했고, 동료들과 극단 '예후'를 만들어 다양한 작품 활동을 했었다. 그러다 연극과의 인연을 놓은 게 지난 1992년이었다.

“당시에는 연극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무대에 섰었죠. 하지만 연극에 점점 빠져들면서 미술에 대한 에너지가 많이 약화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두 개에 쏟을 에너지를 한곳에 집중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연극을 그만 하겠다고 선언하고, 바로 미대 대학원에 입학했죠. 제가 칼같은 면이 있어서 오랫동안 연극 작품도 보지 않고, 그림 그리는 데만 몰두했었어요.”

동신고 출신인 한중곤(53)씨는 서울예전에서 공부했다. 제1회 전국연극제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던 극단 시민의 '소작자'에도 출연했던 한씨는 1992년 '도적들의 무도회'에 출연한 것을 마지막으로 광주를 떠났었다. 이후 러시아 슈킨 연극대학에서 4년동안 공부하고 경기도립극단 등에서 활동하며 경기

도를 중심으로 연극 작업을 해왔다.

정씨는 공연 제의를 '자연스럽게' 받아왔다. 미술 분야에 오랫동안 몰두했으니, 좋은 작품이 있으면 연극작품에도 한번 출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립극단 재창단 작업이라는 의미도 있었기 때문이다. 정씨는 이번 창단 공연에 5분 정도의 짧은 출연이었지만 20여일 넘게 매일 연습실에 나가 배우들과 호흡을 맞췄다.

“연극은 특히 몸으로 무대개는 작업이자 앙상블이예요. 언제나 연극관의 상황은 어려웠지만 그곳에는 열심히 땀흘리는 배우들이 있었죠. 그런 선배들을 보면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구요. 이제 우리 나이가 무언가 '표상'이 되어주어야할 시점이지요. 그래서 더 열심히 참여하려고 했죠.”

정씨는 오랫동안 연극계와 인연을 끊었지만 한씨와는 연락을 주고 받으며 늘 '광주에서 활동하라'고 권유했었다. 연극 중단을 선언할 때 자신이 갖고 있던 희곡, 팸플릿 등 모든 자료들도 모두 한씨에게 넘겨줬었다.

“이번 재창단 공연은 지역 연극인들이 모두 의기투합해 작품을 만들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후배들과 작업하면서 아쉬웠던 게 중추 역할을 할 30대 연극자가 별로 없다는 점이었어요. 관련학과들도 많이 있는데 현장에 사람이 없다는 건 서울 등 수도권으로 많이 옮겨간다는 이야

한중곤씨 러시아서 연기교육

지역 극단들 '러브콜' 이어져

시립극극단 단원들 연기지도

기겠죠.”

한씨 역시 광주를 떠난 건, 지역 연극관의 여건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많이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시립극단도 다시 생기고, 무엇보다 열심히 작업을 하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한씨는 앞으로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우선 8월20일부터 10일간 광주시립극극단 단원들의 연기 지도를 맡는다. 러시아에서 연기 교육을 전공했던 터라 딱 맞춤형 일이다. 또 지역 극단들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어 하반기에는 한씨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을 듯하다.

정 씨 역시 자신의 나이와 성격에 맞는 캐릭터 제의가 들어온다면 이제는 작은 역으로라도 이제는 무대에 설 생각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번 시립극단 출범을 계기로 지역 연극계가 좀 더 탄실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재즈, 미술관을 적시다

시립미술관, 내일 '신관웅 파르티' 재즈 공연

감미로운 재즈 선율이 한 여름밤 미술관을 장식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다음달 1일 시립미술관 잔디광장에서 오후 7시30분부터 9시까지 '한여름밤 미술관 음악회'를 연다.

개관 20주년을 맞아 펼쳐지는 이번 음악회에는 한국 재즈 연주 1세대를 대표하는 신관웅(사진)씨와 대표적인 재즈 뮤지션들이 참여하는 '신관웅 파르티' 재즈 공연과 강숙자 전남대 교수·강양은 호신대 교수의 성악 공연이 펼쳐진다.

신관웅씨는 재즈 불모지였던 국내에 재즈를 보급하고 발전시킨 인물. 한국 최초로 빅

밴드를 결성하고 국악과 재즈, 클래식과 재즈의 크로스오버를 시도하며 신선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공연에서 그는 'Blue bossa', 'Mo better blues' 등 재즈 음악을 선보이며 하사와 병장의 보컬 이경우씨도 보컬로 참여, 'Summer time', '목화밭', '봄날은 간다' 등을 들려준다.

또 소프라노 강숙자·메조 소프라노 강양은 교수의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등도 관람객들의 무더위를 잠시 잊게해줄만한 공연으로 눈길을 끈다.

한편, 시립미술관은 31일부터 다음달 5일



까지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미술관 무료 개방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음악회가 열리는 1일에는 밤 9시까지 미술관을 연장, 운영한다. 문의 062-613-7150.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백화점이야 갤러리아

광주신세계 1층 광장, '크게 보기, 작게 보기'전

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감성(感性) 서비스'라면 확실히 성공한 듯 하다. 작가의 의도나 작품이 갖는 의미를 모르더라도 한번쯤 발길을 멈출 정도로 눈에 확 들어오는 미술작품이 적지 않아서다.

광주신세계갤러리아 다음달 16일까지 여는 '크게 보기, 작게 보기'전은 관람객들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작품들로 채워진 전시다.

백화점 입구나 1층 광장, 갤러리 등을 둘러보다보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거나 카메라를 찾아야 하는 이색 작품이 적지 않다.

“예술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것”이라는 전시 의도에 맞춰 16명의 작가들은 평범한 일상 속 사물에 대한 차별화된 시각을 반영한 작품 33점을 내놓았다.

백화점 정문 광장에 설치된 황한일씨의 '자연에게 권좌를'이라는 5m 높이의 대형 의자나 백화점 기둥에 다리를 올린 채 붙일 보고 있는 개의 모습이 연상되는 손현욱씨의 설치 작품 '배변의 기술', 시원스러운 파란 뜨개질로 만들어진 조은필씨의 '일렁이는 궁전'과 유미연씨의 빨간 동백꽃 시리즈는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로 지나가는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든다. 호호하듯 숨을 들이쉬는 박성연씨의 '숨 쉬는 사과'와 철근 등으로 만들어진 김성수씨의 '대형 카메라' 작품도 재미있다.

색채 이미지가 두드러진 작품을 따라 대중의 심리적 문턱이 높은 갤러리까지 자연스럽게 발길이 이어지도록 한 전시 구성도 눈길을 끈다. 문의 062-360-1630.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월드뮤직 뮤지션 모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2012 광주 월드뮤직 페스티벌 오픈 스테이지에 참가할 뮤지션을 모집한다.

분야는 월드뮤직, 재즈, 국악, 락 등 모든 음악 장르를 아우르며 선정된 팀에게는 실비(20만원)와 야외무대 및 음향 장비, 음향 오퍼레이터와 현장 진행 등을 도와줄 인력도 지원해 준다.

접수 마감은 오는 8월 13일까지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자신의 공연을 소개할 수 있는 자료(음원파일 동영상)를 제출하면 된다.

세계적인 크로스 오버 뮤지션 양방언, 발칸 집시 펑크 음악을 들려줄 발칸 비트 박스 등 정상급 뮤지션들이 출연하는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은 오는 9월7일~8일 이틀간 전남대 야외무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의 062-233-247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여름! 박물관 이야기’ 진행

국립광주박물관은 다음달 2일부터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여름! 박물관 이야기’라는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꽃 중의 군자, 난초’라는 주제로 열리는 프로그램은 난초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론학습(30분)과 합창선에 난을 그리는 체험학습(1시간 30분)으로 진행된다.

부모를 동반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60명 이내로 선착순 모집하며 체험비로 4000원을 받는다. 문의 062-570-7068.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보 약, 흥 삼 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長生·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 주 환

영화가 살아나는 곳 MEGABOX

광주/전라지역 콜롬버스 상무

- 광주의 중심, 문화의 랜드마크
- 지역최초, 최다관의 진정한 멀티플렉스
- 편리한 주차공간

광주/전라지역 콜롬버스 하남

- 10개 상영관, 1,635석 규모의 고품격 멀티플렉스영화관
- 넓고 편안한 좌석, 베이비룸 설치(8.9.10관)
- 편리하고 넓은 주차장, VIP 시사회 등 다양한 행사 유치
- 전남 서부권 교통의 메카
- 멀티쇼공간 내 위치

2012 SUMMER

2012.5.13 PM 5:30에
한강에 지체들이 떠올랐다

연가시

성당현연결 평방-(1번 or 2번)→0번

☎ 1588-7941

하남점

한토시영 영화사람

콜롬버스시네마

1관	다크 나이트 라이즈
2관	다크 나이트 라이즈
3관	도둑들
4관	에메이징스파이더맨 / 아이스에이지4
5관	극장판 도라에몽 / 무서운이야기
6관	아이스에이지4/명탐정코난
7관	다크 나이트 라이즈
8관	도둑들 / 다크 나이트 라이즈
9관	연가시
10관	도둑들 / 아이스에이지4

매일매일 초조엔 선착순30명 팔권이 공파!

★매가박스 회원 라바까지 1+1 행사★

평일 오후2시~5시 쿠폰이벤트 할인-이벤트무료-영화무료 !!

호남최대주차장 / www.megabox.co.kr

다크 나이트 라이즈

성당현연결 평방-(1번 or 2번)→0번

☎ 1588-7941

상무점

한토시영 영화사람

콜롬버스시네마

1관	도둑들 / 아이스에이지4
2관	아이스에이지4 / 에메이징스파이더맨
3관	도둑들
4관	도둑들
5관	연가시
6관	도둑들
7관	다크 나이트 라이즈
8관	다크 나이트 라이즈
9관	무서운이야기 / 명탐정코난
10관	명탐정코난 / 다크 나이트 라이즈

(상무점) 리뷰얼 오픈극! 매일매일 팔권이 공파!

★매가박스 회원 라바까지 1+1 행사★

평일 오후2시~5시 쿠폰이벤트 할인-이벤트무료-영화무료 !!

www.megabox.co.kr